



## ‘손 재활 혁신’ 손가락 한 마디 움직임까지 읽어낸다

정밀 진단·전기자극 솔루션

독자 기술 ‘디아그립’ 개발

재활·요양·한방병원 등 공급

기술·임상·데이터 경쟁력 강화

캡스톤 프로젝트 확대 계획

‘연속 재활 루프’ 구축 목표



뇌졸중 환자들이 병원 진료 시간을 제외하면 재활이 사실상 단절되는 현실에 놓여 있다. 특히 일상생활의 핵심 기능인 ‘손 재활’은 전문 치료사의 수기 치료에 의존해,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상태를 확인하거나 꾸준히 훈련을 이어가기 어려운 구조다.

바로 그 공백을 메우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있다. 2022년 설립된 디지털 손 재활 전문기업 메리핸드(대표 박은수)가 그 주인공이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자리한 이 기업은 손 기능 분석과 전기자극 치료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한 독자 기술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메리핸드는 창업자의 개인 경험에서 출발했다. 박은수 대표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돌보던 과정에서 병원 밖 재활의 단절을 빼자리게 느꼈다.

제작 의료진의 도움 없이 환자 스스로 진행하는 손 기능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고, 어느 정도 회복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도 부재했다. “오늘 내 손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면 환자의 의지도 달라질 것”이라는 문제의식은 결국 의료·공학 기반의 정밀 솔루션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회사의 핵심 솔루션은 손 기능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치료까지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 ‘Dia-Grip(디아그립)’이다. 이 기기는 고해상도 카메라와 AI 분석을 통해 손가락 관절의 움직임과 근육 활동성을 정량화하고, 자체 개발한 초소형 전극을 통해 필요한 근육만 선택적으로 자극한다.

측정·훈련 데이터는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되며, 환자별 변화 추적은 물론 향후 AI 기반 예후 예측과 맞춤형 프로그램 추천, 디지털 치료제(DTx)로의 환경도 가능하다. 메리핸드는 이를 ‘재활·정형외과·분야의 인바디(InBody)’에 해당하는 솔루션’이라 규정하며 정량 진단 중심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설립 초기 메리핸드는 연구개발과 인허가 기반 구축에 역량을 집중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GMP 생산 체계 도입, 연구개발특구·정부 R&D 참여 등 기술 중심의 토대를 다지는 과정이 이어졌다.

2024년을 기점으로 국내 재활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실증(PoC)과 실제 공급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규모는 초기 수준이지만 반복 도입과 추가 주문의 증가 등 시장 반응은 뚜렷하다. 향후 건강보험 수가 적용과 가정용 모델 출시, 해외 임상 및 파트너십이 본격화되면 성장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메리핸드의 경쟁력은 △진단과 치료를 단일 기기에서 구현한 기술력 △손가락의 미세 균형까지 정밀하게 자극하는 독자 전극 기술 △축적된 재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높은 확장성 등으로 요약된다.

광주와 대전을 양축으로 하는 지역 기반 성장 전략도 눈에 띈다. 광주는 GMP 생산과 고령층 중심의 임상 환경을 확보하기 유리하고, 대전은 대덕연구단지와 정부출연연을 활용한 기술개발에 최적화돼 있다.

다만 수도권 대비 투자·언론·전문 인력 점근성이 떨어지는 점은 여전히 기업이 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메리핸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병원과의 공동 임상과 정부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산학연 협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관절 추적 알고리즘 개발은 대학 연구실과 균전도 분석 기술은 지역 연구진과 함께 진행했다.

재활병원·한방병원과도 다기관 파일럿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어 기술의 임상적 검증이 본격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향후 작업치료·물리치료·재활의학 관련 학과와의 캡스톤 프로젝트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메리핸드는 B2B 중심의 병원용 제품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장하는 동시에, 소비자용 가정형 모델과 구독형 재활 프로그램을 신사업으로 준비 중이다. 환자가 병원을 벗어나도 재활을 이어갈 수 있는 ‘연속 재활 루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박은수 대표는 “재활의 고통을 줄이고, 환자에게 회복의 확신을, 의료진에게는 데이터 기반의 사결정을 제공하는 것이 메리핸드의 목표”라며 “손 재활 분야의 글로벌 스텐더드를 만드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청년창업사관학교 동문, 협업 네트워크 구축

중진공, 목포서 호남권 커넥트데이…우수기업 사례 공유

호남권 청년창업 생태계의 성장 축으로 떠오른 청년창업사관학교 동문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1일 목포에서 광주·전남·전북·제주 청년창업사관학교 동문 기업들이 참여하는 ‘커넥트 데이(Connect Day)’를 개최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망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발굴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교육·코칭·사무공간·제품제작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대표 창업 육성 플랫폼이다. 중진공은 이번 행사가 호남권 동문 간 상생 협력과 ESC 중심의 사회공헌 확대를 함께 도모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행사에서는 4개 지역 청창사를 대표하는 우수 창업기업 발표가 이어졌다. 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는 농업회사법인 오엠오 허누림 대표가 첫

발표를 맡았으며 이어 전북 씨니싸이드업 한원경 대표와 제주 앵글로 박경진 대표가 성장 전략과 핵심 성과를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이번 종동문화회를 주관한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는 ‘㈜터빈크루’ 전기은 대표가 CES로 향한 꿈: 전남에서 세계로’를 주제로 혁신 사례를 공유하며 현장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동문들은 발표를 통해 각 기업의 강점과 보유 기술을 확인하고 기술 협력과 공동 마케팅, O2O 연계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업 가능성을 논의했다. 단순한 공유 행사를 넘어 동문 기업 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교류의 장이 됐다는 평가다.

또 지역 미래 인재 지원을 위한 ‘지역 자립청년 기부 전달식’도 열렸다. 동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번 기부 활동은 호남권 청년층의 자립과 성장을 돋는 민관 협력형 ESG 실천 사례로 의미를 더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 광주은행, 전남인재육성 장학금 5000만원 기탁

2015년부터 누적 4억9000만원 지원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광주은행이 전남인재육성 장학금 5000만원을 지난 10일 기탁해 지역 미래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피는 공부방·학업·예체능 분야 우수 청소년을 지원하는 ‘희망이 꽂히는 꿈나무’ 등 다양한 청소년 성장지원 프로그램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장학금을 기탁한 광주은행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장학금은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 준비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